하나님 계심 믿기가 왜 이리 힘들까?

(히11:3~7)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계심 믿기가 왜 이리 힘들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독일에 머물면서 공부할 때입니다, 주로 같이 지내고 있는 동료들이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었지요, 신학대학 안에 소속되어 있었으니까 유학 온 한국 분들이 늘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과 함께 독일의 대학에서, 그것도 신학대학인데, 생활하면서 아주 낯설고 당황스럽고 어색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1990년에 제가 독일에 갔으니까, 벌써 24년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외국이 진짜 외국이었어요, 그중에도 유럽은 미국하고 달라서 정말 낯섭니다.
미국은 워낙 영화나 TV나 뉴스에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낯설고 어색한 장면 중 하나가 이 신학대학에 속한 젊은 남녀대학생들의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입니다.
남자대학생이 바깥 복도에 있는 벤치 같은 데에 앉아있으면 여자애가 올라타서 앉아요, 그러

고는 얼굴을 비벼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입을 갖다 대고는… 아! 이거 목사님하고 앉아 가지고 흠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다른 독일대학생들은 아무도 그걸 개의치 않고, 당사자들도 개의치 않고…
아, 그것뿐이 아니에요.

야외수영장이 참 많아요, 곳곳에 수영장이 아주 잘돼 있지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복을 갈아입으려면 탈의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름에 야외수영장에서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들 수영하기도 하고 바깥 잔디밭에 앉아 쉬기도 하고 일광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옆에서 그냥 훌러덩 벗고 알몸으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복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렇습니다.
어이구, 참! '아, 좋았겠네!' 그런 분 계세요?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쩔 줄을 몰라요, 눈을 어디다 두고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같이 앉아있는데, 목사님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분들이 그래요, 젊은 여자 분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개의치 않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그 사실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믿는다는 얘기는 말이 됩니다.
상 주신다고 하는 게 어떡하든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확실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 이건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충분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를 가지고 '아, 하나님은 존재하셔!' 그의 To Be 하심을 그냥 인식하고 깨닫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신앙고백 할 때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교리적으로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걸 믿어?' '아, 믿지 아무렴, 거 말해서 뭐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야외수영장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훌러덩 벗고 있는 그 아가씨가 옆에 동양에서 온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것을 개의치 않잖아요, 앉아있는 존재에 마음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에 가 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간다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요.
하, 이거 참! 신기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상대한 사람들의 예를 들겠습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은 사람들이다'
상 주심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나가면 분명히 만족하고 분명히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 뭔가 하나님이 주실 거야!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은 자들이라고 특별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세상에 안 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대해야 되는데,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럼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하늘 자체가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차원은 세상이라는 차원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공간의 의식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 와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라고 하는 차원은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동고동락하고 있는 부부는 남편이 거실에 있고 아내가 부엌에만 있어도

서로 거리가 떨어져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직장에 있고 집에 있고, 한국에 있고 출장 가서 미국에 있으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렌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는 멋진 아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가씨가 걷는 속도로 서서히 따라가면서 '어~이! 타! 안 타?'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아가씨는 길을 걷고 있고 이 오렌지족은 차를 타고 있어서 있는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자동차라고 하는 차원과 길이라고 하는 차원, 다르지만 자동차를 탄 오렌지족이 계속 따라가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늘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앞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마음으로 상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깁니까?
대체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애인 사이인 두 남녀가 카페에 앉아 있어요, 근데 둘 다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있고 위치적으로도 서로 마주대하고 있지만 전혀 마음으로 서로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남자친구에게 친구로부터 전화라도 오면 아~ 깔깔대며 전화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자기 여자 친구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마주대하고 신문 보는 경우.
어머니가 제일 싫어했던 게 아버지가 식탁에서 신문 보시는 거예요.
'여보!' 소리 꽥 질러요, '신문 좀 치워요!'
하루 종일 나가 계시다가 저녁 때 식탁에서 마주 앉았는데, 또 신문을 보고 계시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마는,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정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제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해라, 하나님이 계심에 마음이 좀 가 닿아라,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전혀 마음이 가 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훌러덩 훌러덩 옷을 갈아입는 독일 아가씨들처럼 그러지 말고, 좀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마음이 좀 가 닿아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마주대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어떻게 얘기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봐요.
제가 자주 드는 예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풍랑 만난 배의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동차를 타고 아가씨를 쫓아가는 오렌지족처럼 우리 옆에 따라 붙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야외수영장에서 훌러덩 옷을 벗고 갈아입고 있는 독일 젊은이들처럼 옆의 사람을 상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뭘 상대합니까? 마음으로 가 닿는 상대역이 풍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에요, 풍랑이 일지만 풍랑을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듯이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풍랑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 풍랑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것들은 상대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풍랑을 상대 안 해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앞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닿았습니다.
마음이 가 닿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지구의 티끌만한 갈릴리 바다의 풍랑 정도가 아니라 지구와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그 아버지에 마음이 가 닿은 겁니다.
근데 풍랑이 인다고 울고불고 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풍랑에 마음이 닿으니까 풍랑을 상대하고 하나님은 계신데도 무시해버리고, 아~ 이거 어려운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에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봅니다.

지금 사울왕은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계심을 믿는 거지요.
히브리서 저자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말뜻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계심을 믿어서 골리앗의 계심에 마음이 가 닿은 겁니다, 그러니 벌벌 떨지요.
그런데 다윗은 나타난 것이 골리앗이에요, 이 나타난 골리앗의 생명도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는데, 그 하나님에 마음이 가 닿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게 뭡니까?
온 세상 전쟁의 주인이라는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가 전쟁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는데, 그분께 마음이 닿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의 능력이나 전투력 따위를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제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안 믿고 있으니까.
돈 문제 때문에 나와 가지고 계속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물주 중에 왕 물주이신 조물주 하나님아버지가 옆에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상대하고 그 아버지 계심에 마음이 가 닿는 게 아니라, 돈 문제 계심에 마음이 가 닿은 거예요.
그러므로 돈 문제 계심을 믿는 겁니다.
돈 문제가 있는 한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도 하나님 계심에 마음이 가 닿지 않는 겁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사람의 몸을 지으셨습니까?
사람의 몸에 고장이 났어요, 근데 아버지께 나아갔으면 아버지 계심을 믿는다, 아버지를 상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 병 낫게 해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소리친다는 것은 건강 문제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 이거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 가지 계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마음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문제가 살아있는 것에 마음이 닿아버리는 거예요, 풍랑 문제에 마음이 닿아버린 것처럼, 풍랑의 계심을 믿는 것처럼, 골리앗 계심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계심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계심을 안 믿고.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이 계심들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풍랑처럼 돈 문제가 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서 알고 계심과 사랑하고 계심과 아버지 되고 계심을 내가 마음이 가 닿아서 상대하고 있으면, 돈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문제가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나 지금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 좀 있어!'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돈 문제 계심을 믿고 와서 계속 돈 문제를 바라보면서 돈 문제를 상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옆에 있는데…' '아, 가만 좀 계세요!' 그러고는 '돈 좀 해결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뭐예요?
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안돼요, 돈 계심을 믿게 되지 하나님 계심을 믿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문제 계심을 믿고 자녀문제 사업문제 계심을 믿지, 하나님 계심을 믿게 되지를 않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끼어들려고 하면 '아, 죄송하지만 잠깐만 계세요, 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돈 문제 계심을 믿고 돈 문제를 상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암만 옆에 계셔도 '하나님, 잠깐 계세요, 좀,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급하다는데 자꾸 끼어들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돈을 향하여 마음을 고정시켜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안 찾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돈 문제가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잠깐 있어, 너 좀, 내가 지금 하나님 계심을 먼저 상대하고 널 상대할 테니 잠깐 기다려라' 이러고 기도하러 들어와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잠깐 계세요' 이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힘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돈 문제를 상대하고 있는, 돈 문제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 문제 계심을 믿는 믿음, 자녀문제를 상대하고 있는 이 마음의 방향성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건강문제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되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도록 마음이 바뀌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 계심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상대하기만 하면, 어? 하나님께 마음이 가 닿았더니 그분이 조물주시고 그분이 인간을 지으셨고, 그분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외아들을 나 때문에 저주 가운데 집어넣으실 만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아들을 저주 가운데 넣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가 닿으면, 하나님을 상대한 다음에 돈 문제를 봤더니,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래서 이런 돈 문제를 일으키셨구나!~ 할렐루야, 돈 문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났더니 말뚝이 박힌 것 같이 사탄의 가시가 몸에 박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고 봤더니 사도바울의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아~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그러셨구나? 이런 말뚝은 평생 끼고 살아야 될 거야!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이 노아와 아벨과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갖고 있는 신앙관 신앙적 역사관이 뭐냐 하면, 구약의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을 바라보면서 갔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아버지와 함께 그 앞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언젠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 십자가사건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을 상대하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냐 하면, 에녹과 아벨과 노아는 일어날 십자가사건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

서 십자가사건에서 완성되어지는 의미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앞의 노아는 일어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일어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면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상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 계심을 믿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일어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도록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계심을 믿게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제 나중에 읽다보면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시절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의 모든 시대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가고, 예수님 사건 이후의 모든 시대는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관 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십자가에서 완성된 의미가 그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보이는 것을 마음으로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를 3절에 둔 겁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사도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그 얘기이거든요.

하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이 가 닿으려면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마음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A라는 사람과 얘기하고 있을 때, B와 상대하려면 A라는 사람과 대화를 멈춰야 B를 상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대상에 대해서 상대하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아벨이고 에녹이고 노아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꼭 이 살아계심을 믿는 하루가 되어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내가 만나는 돈 문제, 가정문제, 건강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세요!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주님처럼 똑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풍랑의 계심을 믿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들에게서 끝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심을 믿는 주님의 잠 주무심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